

지역 소식통

정읍시, 8월 주민세 13억4000만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0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47,063건에 대해 5억1천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면, '소금과 빛 국악 한마당' 개최

위도 면민을 위한 '소금과 빛 국악 한마당 행사'가 지난 13일 토요일 밤 관광객 및 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위도 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는 100여명 이상의 해수욕장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 국악 공연을 즐기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공연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설장구 김해순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여러 가수들이 위도를 방문하여 풍부한 감성의 수준 높은 음악공연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밤에도 식지 않는 무더위를 공연과 함께 날려 버리게 되었다.

위도이장단협의회(회장 조기현)가 고슴도치섬 위도를 일리고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김제 아이엘컴퍼니(대표 방관철)에서 주관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위도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호우 피해 현장 긴급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 이평면 무릉마을 등 피해지 방문... 피해 현황 파악·대책 마련 지시

정읍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오전 휴가 중이었던 이학수 시장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강한 돌풍과 함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정읍에 최고 순간풍속 8% 이상의 바람이 불고, 34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평면 말복장터길 인근 주택 2곳과 노인회관의 지붕이 바람에 부서지고, 무릉마을 주택 2곳이 파손되면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무릉마을 조립식 창고의 벽면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고 주변 하우스 4개 동이 강풍을 맞 이기고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휴가 첫날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현장에 직접 나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복구와 정비를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또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 등 장비의 가동 상태 점검을 지시하고 피해 주택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8시경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장과 전 공무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하며, 풍수해 관련 피해상황 접수와 비상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최선 방책은 철저한 사전 대비"라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 권익현 부안군수, 제6기 회장 선출

부안군은 "지난 12월에 개최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6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군 최초로 민선7기에 이어 민선 8기 연임에 성공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5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금년 제6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도시 간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대안제시로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에 창립했다.

제6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포럼 개최, 순환경제를 위한 지자체 폐기물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확대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집중호우



로 인한 피해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반증이며, 기후위기는 이미 환경문제를 넘어선 경제문제로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주거와 교통 분야에 친환경 수소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수소도시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내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수소저장버스와 소형 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방역관리 만전

부안군 관내 5개소 해수욕장(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이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일제히 폐장했지만 폐장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와 여름철 마지막 피서객들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해수욕장에 배치·운영하는 등 안전과 방역 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37명과 방역요원 24명을 8월 31일까지 연장근무 조치하고 구명보트 등 필수 장비 역시 철수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중점 계도하고 해수욕

장 내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과 음주 후 입수금지,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안군의 이러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지난 13일 야간근무 순찰 중 해무질을 하다 부상을 입은 관광객을 발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음주 후 입수하려는 취객들을 저지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11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강의실에서 합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농촌지역 고창,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요 중간지원조직 '도시브랜드 구축 합동정책포럼' 성료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난 11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강의실에서 합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통합 거버넌스체계 구축사업으로 열린 이번 도시브랜드 구축 및 네트워킹 합동정책포럼은 '농촌지역 고창, 도시브랜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고창의 주력사업을 이끄는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학교),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영근),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설정환) 구성원들과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의견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구심안영업사 현장에서 진행한 현장포럼은 황태규 우석대 관광학과 교수 등과 참석자 간의 심층 대담을 통해 각 센터의 역할과 시시점을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황후 이틀 3개 센터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으고 상호 간의 교류와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산외면 청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

정읍시 산외면사무소와 산외면 청년회가 노후·불량 주택 가구에 거주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물했다.

산외면사무소와 산외면 청년회 40여명은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당 가구는 저소득 고령 가구로 주방 싱크대가 낡고 오래되어 싱크대 하부 봉괴의 위험과 곰팡이 등 오염이 심하였다.

또한 도배와 장판 오염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도배·장판 시공과 청소 등이 시급했다.

이에 봉사자들은 싱크대 교체와 도배 장판 시공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의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박준식 청년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